크리스탈-비 콤비 통했다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제3000호 www.metroseoul.co.kr

새 금융상품 고객이 바꾼다

18일 오후 인천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선수촌 입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과 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 개막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 슬로건 AG 열전 돌입

45개 회원국 모두 참가…36개종목 놓고 우정의 승부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제17회인천아시안게임이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출전하는 첫 '퍼펙트 아시안게임'이다. 아시안게임은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 열려 이번 인천 대회는 17회째를 맞는다.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36개 전 종목에 선수 831명, 임원 237명 등 총 106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중국이 897명, 일본이 717명의 선수를 출전시키는 등 선수 9700여 명을 포함한 1만4000여 명이 인천을 찾을 예정이다.

북한은 체육상을 맡은 김영훈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및 선수단 273명을 인천에 보내기로 했다.

선수들은 36개 종목에서 총 439개 금메달을 놓고 겨룬다. 이번 대회 역시 중국의 독주가 예상된다. 중국은 수영스타 쑨양, 배드민턴의 린단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3명을 앞세워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9회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 2위를 지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최대 7개 메달을 노리는 수영의 박태환,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손연재 등 개인 종목의 스타 선수들과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야구, 축구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회식은 오후 6시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영화 감독인 임권택과 장진이 총감독과 총연출을 각각 맡아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방송인 김성주와 윤수영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시인 고은,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장동건·김수현, 국악인 안숙선, 뮤지컬 배우 옥주현 등 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무대에 오른다. 월드스타 싸이와 정상의 아이돌 그룹 JYJ가 축하 무대를 꾸민다.

선수단 입장은 오후 8시 25분부터 시작된다. 한국어 표기 국명 가나다순으로 입장한다. 개최국인 한국은 가장 마지막에 경기장으로 들어온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와 관련한 내용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점화 방식과 최종 점화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점화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인물이라고 설명한 조직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이영애를 거명하고 있다.

최종 점화자에 앞서 개회식에서 진행될 성화 점화에는 야구의 이승엽, 골프의 박인비,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규혁, 농구의 박찬숙, 테니스의 이형택 등이 주자로 나선다.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및 한국 성적

순위	개최국	도시	연도	금	은	동	합계
[illegible]	중국	광저우	2010	76	65	91	232
[illegible]	카타르	도하	2006	58	53	82	193
2	한국	부산	2002	96	80	84	260
2	태국	방콕	1998	65	46	53	164
3	일본	히로시마	1994	63	56	64	183
[illegible]	중국	베이징	1990	54	54	73	181
2	한국	서울	1986	93	55	76	224
3	인도	뉴델리	1982	28	28	37	93
3	태국	방콕	1978	18	20	31	69
[illegible]	이란	테헤란	1974	16	26	15	57
2	태국	방콕	1970	18	13	23	54
[illegible]	태국	방콕	1966	12	18	21	51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62	4	4	7	15
[illegible]	일본	도쿄	1958	8	7	12	27
[illegible]	필리핀	마닐라	1954	8	6	5	19
	인도	뉴델리	1951				

연합뉴스 자료/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대회 이튿날인 20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진행된다. 20일에는 모두 1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한국은 이중 9개를 노린다. 대회 첫 메달은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오전 8시 50분께 나올 전망이다. 김장미, 오민경, 정지혜가 대회 첫 금 사냥에 나선다.

이 외에 사격 남자 50m 권총 단체전과 개인전(진종오), 펜싱 남자 에페 정진선과 여자 사브르 김지연 등이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유도와 사이클, 승마에서도 대회 첫날 금메달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5회 연속 2위-90개 금' 이렇게 해낸다

양궁·태권도·사격 등 '7개 전략 종목'에 박태환 다관왕 기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이 11일 오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목표는 90개 이상의 금메달을 거둬 5회 연속 종합 2위를 지키는 것이다.

1998년 방콕 대회에서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 65개로 2위에 오른 한국은 지난 광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2위에 올라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려고 한다.

한국은 종합 2위뿐 아니라 금메달 수에서도 목표를 최대치로 높였다. 이번 대회에 걸린 금메달은 36개 종목(올림픽 종목 28개+비올림픽종목 8개)에 439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보다 금메달 수가 37개 줄었다.

당시 대회에서 76개의 금메달을 얻은 한국은 오히려 목표를 90개 이상으로 올렸다. 우리나라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90개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86년(93개) 서울과 2002년(96개) 부산 대회뿐이다. 다시 한번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1위를 지키는 중국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지난 3차례 대회에서 중국이 획득한 평균 금메달 수는 172개다. 한국은 77개, 일본은 47개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양궁, 펜싱, 사격, 태권도 등에서 최대한 많은 금메달을 따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각오다.

우선 수행 과제는 양궁, 펜싱, 골프, 사격, 태권도, 테니스 등 7개의 전략 종목에서 48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는 것이다. 2차 목표는 사이클, 승마,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럭비, 요트, 레슬링, 야구 등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10개 종목에서 27개의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금 90' 달성의 화룡점정은 육상, 수영, 체조 등 약세 종목에서 최대한 많은 금메달을 확보하는 것이다. 19개 종목에서 최소 15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한 박태환이 그 선두에 선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4개 종목을 포함해 최대 7개의 메달에 도전한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도 금빛 프로젝트에 가세한다. 최근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세계적인 강자들을 누르고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또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크리켓, 공수도, 조정, 세팍타크로, 역도, 탁구, 배구 등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한국은 수월하게 2위 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역대 최고 성적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2위 자리를 다툴 상대는 일본이다. 일본이 육상과 수영에서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목표인 금메달 90개를 딴다면 5회 연속 2위 수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3차례의 대회에서 수영과 유도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육상에서 중국과 중동세에 밀려 고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인천아시안게임 주요경기 일정

9월 14일(일)
- 축구 남자 조별리그 1차전 / 오후 5시 문학경기장 / 한국 대 말레이시아

17일(수)
- 축구 남자 조별리그 2차전 / 오후 8시 안산와스타디움 / 한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19일(금)
- 개회식 / 오후 6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20일(토)
-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 오전 10시 옥련국제사격장 / 김장미
- 사격 남자 50m 권총 / 오후 12시 15분 옥련국제사격장 / 진종오

21일(일)
-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 / 오전 11시30분 옥련국제사격장 / 진종오
- 축구 남자 조별리그 3차전 /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 / 한국 대 라오스
- 펜싱 여자 플뢰레 개인준결승·결승 / 오후 6시 고양체육관 / 남현희 전희숙
-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선 / 오후 7시 문학박태환수영장 / 박태환

22일(월)
- 야구 조별리그 1차전 / 오후 6시30분 문학야구장 / 한국 대 태국
- 사격 여자 25m 권총 결선 / 오전 9시 옥련국제사격장 / 김장미

23일(화)
-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 / 오후 8시 16분 문학박태환수영장 / 박태환

24일(수)
- 야구 조별리그 2차전 / 오후 6시30분 문학야구장 / 한국 대 대만
- 역도 남자 85kg급 / 오후 7시 송도23호근린공원 / 사재혁

25일(목)
- 체조 남자 도마 평행봉 철봉 결승 / 오후 7시 남동체육관 / 양학선
-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선 / 오후 7시 24분 문학박태환수영장 / 박태환
- 야구 조별리그 3차전 / 오후 6시30분 문학야구장 / 한국 대 홍콩

26일(금)
- 볼링 여자 2인조 / 오전 9시 안양호계체육관 / 손연희 이영승 등
-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400m 결선 / 오후 7시40분·8시 30분 문학박태환수영장 / 박태환

27일(토)
- 양궁 컴파운드 여자 단체·개인 결선 / 오전 10시25분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 윤소정 김윤희 등
- 양궁 컴파운드 남자 단체·개인 결선 / 오전 11시 15분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 김종호 민리홍 등
- 야구 준결승 / 오후 12시 30분, 오후 6시 30분 문학야구장

28일(일)
-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개인 결선 / 오전 10시 25분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 주현정 장혜진 등
-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개인 결선 / 오전 11시 15분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 오진혁 김우진 등
-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 / 오후 1시~6시15분 계양체육관 / 이용대 유연성
- 야구 결승 / 오후 6시30분 / 문학야구장

29일(월)
- 레슬링 남자 자유형 61kg급 결승 / 오후 7시 도원체육관 / 이승철

30일(화)
-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1kg급 결승 / 오후 7시 도원체육관 / 정지현

10월 1일(수)
- 볼링 남자·여자 마스터스 / 오전 9시 안양호계체육관 / 최복음 손연희 등
- 핸드볼 여자 결승 / 오후 6시 선학핸드볼경기장
-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5kg급 결승 / 오후 7~9시 도원체육관 / 김현우
- 축구 여자 결승 / 오후 8시 문학경기장

2일(목)
-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승 / 오후 6시 남동체육관 / 손연재 김윤희
- 축구 남자 결승 / 오후 8시 문학경기장

3일(금)
- 농구 남자 결승 / 오후 6시 15분 / 삼산월드체육관
- 배구 남자 결승 / 오후 7시30분 / 송림체육관
- 태권도 남자 54kg급 / 오전 9시 30분 강화 고인돌체육관 / 김태훈

4일(토)
- 폐회식 / 오후 6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연합뉴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일정

종목	세부	일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1	목 2	금 3	토 4	금메달
개회식							●																
수영	경영								6	6	7	7	6	6									38
	다이빙																2	2	2	2	2		10
	싱크로							1		1	1												3
	수구										1								1				2
양궁															4	4							4
육상															5	8	7	4	1	11	1		47
배드민턴										1	1				1	2	2						7
야구	야구															1							1
	소프트볼																			1			1
농구																				[illegible]	1		2
볼링											1	1	1	1		2		4		2			12
복싱																			3		10		13
카누	스프린트																6	6					12
	정수 슬라럼																			2	2		4
크리켓														1							[illegible]		2
사이클	트랙							2	2	1	1	1	3										10
	도로														2	1	1						4
	MTB																	2					2
	BMX																		2				2
승마								1			1			2		1		1					6
펜싱								2	2	2	2	2	2										12
축구																			1	1			2
골프																4							4
체조	기계체조								1	1	2	5	5										14
	리듬체조																		1	1			2
	트램펄린													2									2
핸드볼																			1	1			2
하키																			1	1			2
유도								4	5	5	2												16
카바디																					2		2
공수도																				5	5	3	13
근대5종																				2	2		4
조정												7	7										14
럭비																				2			2
요트																			14				14
세팍타크로										2						2					2		6
사격								4	4	4	4	4	10	6	6			2					44
스쿼시											2				2								4
탁구																		2			3	2	7
태권도																		4	4	4	4		16
테니스	테니스											2					3	2					2
	정구																	2	1	2		2	7
트라이애슬론													2	1									3
배구	실내																			1	1		2
	비치															1	1						2
역도								2	2	2	2	2	2	3									15
레슬링															4	4	4	4	4				20
우슈								2	2	2	2	7											15
폐회식																						●	
합계								17	24	27	28	38	[illegible]	22	24	30	29	35	46	39	36	7	439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 문학박태환수영장(수영)

• 삼산월드체육관(농구)

• 인천국제벨로드롬(사이클)

• 고인돌체육관(태권도)

• 계양아시아드양궁장(양궁)

• 계양체육관(배드민턴)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진종오

아시아 뒤흔들 '월드 클래스' 향연

◆ 마린보이 박태환, 세 번째 AG 출전

박태환(25·인천시청)은 한국 수영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스포츠 스타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그에게 세 번째 아시안게임 무대다.

박태환은 경기고 2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했다. 당시 자유형 200m·400m·15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자유형 100m 은메달, 단체전 계영 400m·800m와 혼계영 4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7개 출전 종목(금3, 은1, 동3)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도 안았다.

아시안게임 두 번째 출전은 2010년 중국 광저우 대회다. 자유형 100m·200m·400m 금메달을 모두 휩쓸며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했다. 아시안게임 수영 개인 종목에서 2회 연속 3관왕에 오른 것은 박태환이 세 번째이자 남자 선수로는 처음이었다.

자유형 1500m와 혼계영 400m 은메달, 계영 400m·800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해 카타르 도하에 이어 또 한 번 7개 출전 종목(금3, 은2, 동2)에서 모두 메달을 땄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금빛 레이스에 나선다. 자유형 100m·200m·400m·1500m와 계영 400m·800m, 혼계영 400m 등 총 7개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자유형 200m·400m는 대회 3연패, 자유형 100m는 2연패를 노린다.

양학선

박태환

올림픽 챔피언 박태환·양학선·진종오 경기 관심 집중

박태환은 "중간 페이스만 보완하면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기록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마다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도마의 신 양학선, AG 2연패 도전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체조 부문 2연패와 다관왕에 도전한다.

양학선은 4년 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도마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이듬해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부문 우승을 차지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로 한국 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금메달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양학선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모든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마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그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

지난 4월 인천에서 열린 코리아컵국제체조대회에서는 '양2'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우승했다. '양2'는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것으로 난도 점수가 6.4에 달한다. 완벽한 수준의 완성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연마 중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도마 부문 2연패와 함께 다관왕에도 도전한다. 링, 개인종합, 단체전 등에 출전하며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4관왕도 가능하다.

양학선은 "그 동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몸만 올라오면 기술은 따라준다고 생각한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 사격 스타 진종오, AG 개인전 첫 금 겨냥

진종오(35·KT)는 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사격 스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첫 출전해 남자 50m 권총에서 은메달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50m 권총 금메달, 10m 공기권총 은메달을 수확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10m 공기권총, 50m 권총 모두 금메달을 휩쓸었다. 50m 권총에서는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차지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 개인 종목 2연패의 기록을 세웠다.

올림픽에서는 승승장구한 진종오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쉬움 남는 성적을 올렸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10m 공기권총 개인전 동메달과 50m 권총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10m 공기권총 개인전 동메달을,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는 10m 공기권총과 50m 권총 단체전 금메달과 50m 권총 개인전 은메달을 차지했다.

올해 2014 아시안게임에서 진종오는 개인전 첫 금메달을 겨냥한다. 타고난 집중력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온 만큼 금메달 전망도 높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최고의 기량을 바탕으로 완벽을 그린다. 베이징 월드컵 등에서 우승하며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냈다.

진종오는 "어느 대회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다"며 "세계 선수권에 이어 곧 바로 아시안게임에 나서야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떨치고 체력을 금방 회복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서연호 기자 solanki@metroseoul.co.kr

역경 딛고 쓰는 감동 드라마

손연재·사재혁·이용대…'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리듬체조 역사 다시 쓸 손연재

인천에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 금메달에 도전한다.

18일 리서치 전문회사 피엠아이(PMI)에 따르면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손연재가 25.4%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예매가 시작된 지난달에는 손연재가 출전하는 경기 티켓이 가장 먼저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손연재의 시니어 무대 데뷔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다. 한국 리듬체조 최초로 개인종합 동메달을 목에 걸며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부지런히 실력을 갈고 닦은 손연재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종합에서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결선에 올라 사상 최고 성적인 5위를 기록하며 리듬체조 역사를 새로 썼다.

손연재는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에서 11경기 연속으로 메달 획득에 성공하는 기록도 달성했다. 지난 7일 카잔 월드컵 종목별 결선 후프 종목에서 18.000의 높은 점수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앞선 던디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에서도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손연재는 지난 29일 러시아 전지훈련 중 소속사 IB스포츠를 통해 "국내에서 열리는 종합대회인 만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자신과의 싸움을 강조해온 손연재가 어떤 내 빛을 볼 수 있을지 세계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다.

◆부상 딛고 다시 바벨든 사재혁

6번의 부상에도 다시 일어선 '오뚝이 역사' 사재혁(29·제주도청)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꾼다.

홍천고·한체대 시절 어깨·무릎·손목 등에 네 자리 수술을 받았던 그는 2007년 6월 왕중왕 대회에서 합계 362kg을 들어올려 우승을 차지하며 남자 역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듬해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77kg급에서 합계 366kg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상의 무대에서 그를 내린 건 다름 아닌 부상이었다. 사재혁은 어깨 부상으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했다.

사재혁은 재활 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다시 도전했다. 하지만 남자 77kg급 경기 중 팔꿈치가 탈구되는 불운을 겪었다. 바벨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큰 화를 불렀다.

귀국 후 곧바로 수술대에 오른 사재혁은 역도를 포기하려 했다. 그는 "역도 인생 마지막 경기를 후회 없이 치르고 은퇴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2013년 다시 바벨을 들었다.

그해 10월 전국체전 남자 77kg급에서 3관왕에 오른 사재혁은 올해 체급을 85kg으로 올렸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다.

사재혁은 올해 6월 남녀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85kg급에서 368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정상에 올랐고 대표팀에 뽑혔다.

이형근(50) 역도 대표팀 총감독은 "아시아 역도는 이미 세계 수준이다"라며 "85kg급에서 합계 380~385kg는 들어야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재혁이 들어 올린 368kg으로는 금메달 획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수차례 극복하고 다시 바벨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이미 '금메달' 감이다. 24일 오후 7시 인천 송도에서 사재혁은 다시 한 번 기적을 들어 올린다.

◆ 자격정지 위기 넘고 다시 윙크 이용대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가 인천에서 자신의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 '금빛 스매싱'에 나선다.

유독 아시안게임과 인연이 없는 이용대다. 배드민턴은 아시아 지역이 강세인데 번번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막혀 눈 앞에서 금메달을 놓쳐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용대는 유연성과 남자 복식조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이용대-유연성은 첫 대회인 덴마크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부터 우승하더니 11월에는 중국오픈 슈퍼시리즈와 홍콩오픈 슈퍼시리즈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순식간에 정상급 복식조로 자리 잡았다.

순항하는 듯했던 이용대는 올해 1월 예상치 못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위기에 놓였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도핑검사 명단에 모든 가운데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위반하면서 1년 자격정지를 당한 것이다. 결국 BWF가 3개월 만에 징계 철회를 결정하면서 이용대는 코트에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허리 통증으로 대만오픈 그랑프리골드에서 기권하기도 했으나 8월 초 국내 코리안리그에서 다시 실전 감각을 익혔다.

시련을 딛고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용대가 인천에서 다시 한 번 승리의 '윙크'를 날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하늘기자 kmx1104@metroseoul.co.kr

4대 프로 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로 동반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국민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를 비롯해 농구와 배구 대표팀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최대 7개의 금메달을 노린다. 국제 대회의 선전은 국내 프로 리그의 흥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선수는 물론 협회·자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남자 선수들에게 금메달은 곧 병역혜택으로 이어져 향후 프로리그에서의 막대한 몸값도 확보할 수 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네 종목 동시 금메달 기회를 놓쳤다. 당시 야구·남자 농구·남자 배구가 정상에 올랐고, 남자 축구가 동메달을 땄다. 여자 배구와 여자 농구는 은메달을 따냈다. 12년 만에 다시 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안방 이점을 앞세워 최초의 기록에 도전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4대 프로 스포츠 첫 동반 우승 노려

야구·축구·농구·배구 최대 7개 금메달 목표… 리그 흥행 직결

리그 최고선수 포진… 대만전 총력

기장 금메달 전망이 밝은 종목은 야구다. 한국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 4년 만인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프로 선수를 출전시켰다. 이번 대표팀엔 해외파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병호·김광현·양현종·김광현 등 리그 최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류중일 감독은 전승 우승을 자신했다. 처음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201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2승 1패로 1라운드 탈락했던 류 감독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경기는 24일 대만과의 조별예선이다. 미리보는 결승전인 이 경기에서 조 1·2위가 갈릴 전망이다. 한국은 대만·홍콩·태국과 B조에 속해 대만을 꺾으면 조 1위가 확실시 된다. B조 1위를 차지하면 일본·중국·파키스탄·몽골로 이뤄진 A조 2위팀과 준결승을 치른다.

류 감독은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 걱정을 털어놓았다. 지난달 30일 손가락 부상을 당한 강정호에 대해 "(18일)LG 트윈스와 평가전만 뛰고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나지완도 타격감이 떨어진 상태라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외 선수들의 몸 상태는 괜찮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만은 미국 마이너리그 선수들 위주로, 일본은 사회인야구 선수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김승대·지소연 골든슛 남녀 동반 '금' 기대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한다.

레버쿠젠의 반대로 손흥민이 합류하지 못했지만 월드컵을 경험한 장신 공격수 김신욱과 골키퍼 김승규,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멘티 플레이어 박주호가 와일드카드로 합류했다.

김신욱은 2013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시아 정상을 경험한 바 있다. 신장 196㎝, 체중 93㎏의 남다른 체격에서 뿜어져나오는 파괴력은 경쟁국 선수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타로 떠오른 김승규의 활약은 또 한 번 기대를 모은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윤일록(서울)·문상윤(인천) 등 K리그 정상급 왼쪽 측면 공격수들이 메운다. 개막전 열린 조별예선에서 2연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김승대(포항)는 2경기 연속 골로 팀을 이끌고 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도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노린다. 2연승으로 8강행을 확정했다.

여자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 여자 축구 종목이 생긴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매번 참가했으나 광저우 대회 3위가 최고 성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강부터 합류하는 '지메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건다. 클럽에서 핵심 선수로 맹활약하며 팀을 1위로 이끌고 있는 지소연이 펼칠 세계 수준의 경기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어게인 2002' 만리장성 넘어라

남자 농구는 2002년 부산 대회의 영광 재현에 나선다. 당시 대표팀은 전력상 한 수 위인 중국과의 결승에서 종료 32.5초를 남기고 7점을 뒤진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 승을 거뒀다. 1970년 방콕·1982년 뉴델리 대회에 이어 한국 남자 농구가 차지한 아시안게임 세 번째 금메달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이란·필리핀 등 난적이 버티고 있지만 전략가 유재학 감독이 잠팀을 누를 비책을 연구 중이다.

여자 농구 대표팀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0년 만의 금메달을 노린다. 한국에서 열린 1986년·2002년 대회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징크스도 떨어내려 한다.

특급 공격수 김연경 금 스파이크

한국 남자 배구는 2002년 부산과 2006년 도하에서 연속 정상에 올랐던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 이후 하락세를 겪었지만 전광인·송명근 등 젊은 공격수가 가세한 이번 대표팀은 한결 힘이 넘친다.

아시아 최강 이란이 아시안게임 직전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전력을 쏟을 가능성이 큰 것도 호재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4강에 진입한 여자 배구 대표팀은 20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한국 여자배구는 이후 중국의 벽에 막혀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은 물론 일본과 태국도 한국을 위협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 김연경이 있어 예느 때보다 금메달 전망이 밝다.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

지상파 스타 해설진·화려한 볼거리

'야구' 박찬호·이승엽…'축구' 어게인 브라질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과 함께 지상파 3사(SBS·KBS·MBC)의 중계 경쟁도 막이 오른다. 각 방송사는 스타 해설진을 종목별로 포진시켜 시청자를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전야제 특집 프로그램 등도 준비돼 있다.

◆스타 플레이어에서 스타 중계진으로

대한민국 야구의 상징 박찬호와 이승엽이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야구 중계로 맞붙는다.

SBS는 박찬호 해설 위원과 동직구 해설로 프로야구 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순철 위원을 투톱으로 내세운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올려 아시아 투수 통산 최다승 기록을 세운 국내 야구의 상징이다. 그는 지난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지금 해설을 맡았을 때도 뛰어난 입담과 선문적인 분석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KBS는 이용철 해설위원과 함께 국민타자 삼성 라이온스의 이승엽을 포진했다. 이승엽은 2006년 코나미컵 대회에서 KBS 특별해설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입담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MBC는 연륜 있는 중계진을 앞세웠다. MLB 경기 중계로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한명재 캐스터와 허구연 해설위원이 MBC의 야구 중계를 맡을 계획이다.

축구 중계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개성 만점 해설 삼생이 재현될 예정이다.

SBS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박문성 해설위원과 중계를 맡았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1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렸던 대한민국-말레이시아 전에서 호흡을 맞추며 속사포 같은 해설로 시청자 호평을 받았다.

KBS는 족집게 해설로 화제가 된 이영표를 재기용해 월드컵에 이어 한 번 더 조우종 아나운서와 함께한다. 이영표 특유의 입담과 연륜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KBS 중계에 신뢰를 갖게 한다.

MBC는 아빠들이 다시 출동한다. 지난 월드컵에서 '가랑이 슛~ 쫍니다' 등의 어록을 탄생시킨 안정환 해설위원과 김성주 캐스터, 송종국 해설위원이 나선다.

이외에 신수지 기보배 등도 해설 위원으로 활약한다. MBC는 리듬체조 해설위원으로 신수지를 위촉해 시청률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신수지는 한국 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바 있다. 효자 종목 양궁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해설한다. KBS에선 기보배, MBC에선 윤미진, SBS에선 김경욱이 출연한다.

MBC 축구 해설진. (오른쪽부터) 송종국 김성주 안정환 /MBC

박찬호

이영표

◆ 경기 중계 그 이상의 재미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도 선수들을 만날 수 있다. 각 방송사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KBS는 두 개 채널(1TV, 2TV)을 활용해 19일 오후 6시에 열리는 개막전 전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19일 2TV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특집 나는 국가대표다'를 특집 방송한다. 국가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MBC는 19일 오후 6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특집 아시아의 별 태극전사의 도전'에선 국가대표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을 조명한다.

/권효진 김지민 기자

jmonkik@metroseoul.co.kr

AG 기간 예능·드라마 줄줄이 결방

'인기가요' '런닝맨' 등 시간 앞당겨…'일밤', '진짜사나이'만 방송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 일정으로 지상파 3사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이 결방된다.

19일엔 KBS1을 제외한 3개 채널이 모두 개막식 중계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결방한다.

따라서 이날 방송 예정인 KBS2 '뻐꾸기 둥지' '뮤직뱅크', MBC '소원을 말해봐' 등이 방송되지 않는다. 결방 릴레이는 주말까지 이어진다. 남자 수영 유도, 여자 펜싱 축구 예선 중계가 편성된 21일 오후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방송되지 않는다.

이날 SBS는 오후 3시 50분에 편성됐던 '애니멀리지 즐거운 가'를 결방하고 수영 유도 중계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방송되는 '인기가요'와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룸메이트'는 오후 2시 10분부터 차례로 방송된다. MBC는 '일밤'의 1부 코너 '아빠 어디가'는 결방하고 '진짜 사나이'(사진 왼쪽) 여군 특집만 방송한다.

한편 SBS 주말드라마 '기분 좋은 날'(오른쪽)은 중계 일정으로 인해 조기 종영하게 됐다. SBS 측은 "'기분 좋은 날'은 앞서 추석 연휴 결방에 이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로 결방이 불가피해졌다"며 "극의 긴장감이 사라져 재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빨리 종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0부작이었던 '기분 좋은 날'은 44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김지민 기자 langkim@

궁중 미스터리 '비밀의 문' 열린다

한석규·이제훈 영화 이어 드라마서 영조·사도세자로

배우 한석규와 이제훈이 SBS 새 월화극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건)'에서 재회한다. 영화 '파파로티' 이후 2년여 만이다. 전작에선 스승과 제자, '비밀의 문'에선 조선 비운의 부자 영조와 사도세자로 만난다.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한석규는 "배우로 지내면서 스승과 제자, 장남과 아버지를 연기하고 싶었다"며 "이제훈과 함께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 모든 걸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조와 사도세자는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 멋지게 꾸며질 수 있는 소재"라며 "이제훈과 입대 전 만났다가 입대 후에 또 하게 됐는데 요즘은 금방 제대하는 것 같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석규는 작품에서 왕 영조를 연기한다. 권력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백성들을 위한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세자 이선(이제훈)과 갈등한다.

'비밀의 문'을 전역 후 첫 작품으로 선택한 이제훈은 "세대 후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전생에 무슨 사이였는지 선배와는 큰 인연이 있는 것 같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다.

배우 김유정과 박은빈은 이날 '비밀의 문'을 두고 "기대"라고 말했다. 김유정은 가상 인물 서지담 역을 맡았다. 사도세자 부인으로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와 대립한다. 박은빈은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연기한다.

김유정은 "서지담 역은 발랄한 성격으로 드라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인물"이라며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더불어 이런 선배들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은빈은 "한중록을 읽으면서 한 많은 여인 홍씨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될 지 궁금했다"며 "한석규 선배와 함께 한다는 것, 남편이 이제훈이라는 게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작품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세상을 주창했던 사도세자의 부자 간 대립을 담는다. 여기에 의궤 관련 살인 사건이라는 궁중 미스터리를 더해 역사를 재해석한다. 오는 22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cach@metroseoul.co.kr

크리스탈·비 콤비 통했다

'내겐 …' 12살 나이 차·연기력 우려 딛고 시청률 1위

SBS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12살 나이차' '첫 주연작'이라는 우려를 딛고 낸 성과다. 특히 첫 주연 작품임에도 안정적으로 역할을 소화하는 정수정의 연기가 무난하다는 평가다.

정수정은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2011), SBS '상속자들'(2013)에서 통통 튀는 면모를 지닌 가벼운 캐릭터를 소화한 바 있다. '내겐 …'은 크리스탈의 첫 정극 주연 작이다. 방송 전부터 연기력에 대한 우려가 컸던 이유다.

그러나 정수정은 지난 17일 '내겐 …' 첫 회에서 발랄함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띄우며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생활은 고달프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은 지키며 살아가는 씩씩하고 당돌한 윤세나 역을 적절하게 소화했다. 배우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방송에선 정수정과 정지훈의 12살 나이차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본격적으로 사랑이 시작될 때까지 지켜볼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첫 회에서 두 사람은 이현욱(정지훈)의 반려견을 두고 티격태격했으며 방송은 이현욱이 윤세나가 죽은 연인 윤소은의 친동생임을 알면서 마무리됐다.

앞서 정지훈은 지난 15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앞으로 사랑하게 될 윤세나를 보호하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이다"라고 역할을 소개한 바 있어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청자의 감성을 어떻게 자극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내겐 …' 1회는 시청률 8.2%(TNmS·전국 기준)로 MBC '내 생애 봄날'(8.2%)과 동시간대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KBS2 '하이언…'(5%)보다 3.2% 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효진기자

19금 영화계의 어벤저스 군단 등장?

윤계상·오정세·조달환·황찬성 '레드카펫'서 코믹 호흡

배우 윤계상, 오정세, 조달환, 그룹 2PM 멤버 황찬성이 영화 '레드카펫'(감독 박범수)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소화한다.

윤계상은 19금 영화에서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감독 박정우 역을 맡았다. 자신이 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서툰 순정마초 캐릭터를 연기했다. 오정세는 박정우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열혈 조감독 진환을 연기했다. 19금 개그 담당으로 솔직하고 발칙한 입담을 과시했다.

조달환은 CG의 달인이자 촬영부터 편집까지 담당하는 멀티 플레이어 준수 역을 맡아 오정세와 코믹한 콤비 연기를 펼쳤다. 2PM 멤버 황찬성은 진지해 보이지만 의외로 허당인 막내 대윤 역으로 선배 배우들과 호흡을 함께 했다.

네 배우는 '19금 영화계의 어벤저스 군단'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촬영장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레드카펫'은 19금 영화 전문 감독 박정우(윤계상)와 그의 스태프들이 톱스타 정은수(고준희)를 캐스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다음달 2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박정현 힙합과 만나다

R&B 디바 박정현이 힙합과 만났다.

박정현의 소속사 블루브린트 유직은 18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박정현의 신곡 발표 소식을 알렸다.

박정현은 오는 22일 다음 달로 예정된 새 앨범 '싱크로퓨전 리나 박+브랜뉴뮤직'의 발표에 앞서 수록곡 '잠깐 만나'를 공개한다.

'잠깐 만나'는 현악 R&B 장르로 브랜뉴뮤직의 대표 작곡가 에스브라스와 박정현이 함께 작업했으며 힙합그룹 켄텀의 멤버 한해가 랩 파트에 참여했다. 랩을 제외한 가사는 브랜뉴뮤직 대표인 라이머와 소유 '경기고의 썸'을 쓴 제피가 맡았다. 소속사는 "박정현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한해의 래핑이 어우러지면서 빈틈없는 하모니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앨범 '싱크로퓨전 리나 박+브랜뉴뮤직'은 지난 5월 '싱크로퓨전 리나 박+필89'에 이은 두 번째 싱크로퓨전 시리즈다. 싱크로퓨전은 박정현이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로 박정현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규 음반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과 음악에 도전하고 있다.

/김구현기자 ianak@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인천지역 호텔 아시안게임 기간 다양한 이벤트 실시

인천지역 호텔들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아시안게임 호텔 프레스티지 파트너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인천 아시안게임 패키지'를 출시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는 패키지는 편안한 객실에서의 1박과 조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아시안게임 마스코트인 '비추온' 인형이 선물로 증정되며 응원 후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와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호텔은 10월 4일까지 이스트 타워 1층에 위치한 비 바&가라오케에서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아시안 게임 라운지'도 운영한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 아시아 다양한 나라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시안 요리 스페셜 뷔페'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요리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게다가 호텔의 로비 라운지인 커넥션은 우림코와 칵테일 골든 메달리스트와 함선에 능력이 우수한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사용한 스무디 등 건강 드링크로 영양을 충전할 수 있는 '건강 드링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인천 네스트호텔은 경기 티켓을 소지한 호텔 숙박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해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자랑하는 더 플라츠에서 프리미엄 조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가을의 진정한 맛을~

르네상스 서울 호텔 송이 요리 선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중식당 가빈에서 다양한 자연 송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가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가을의 맛과 향이 듬뿍 들어 있는 자연 송이버섯을 주재료로 점심과 저녁 모두 '수(壽) 코스'와 '복(福) 코스'로 나뉜다.

점심 수 코스로는 자연 송이 죽생수프와 자연 송이 전복, 자연 송이 소고기요리 등이 제공된다. 점심 복 코스는 자연 송이 킹크랩과 제비집 수프, 자연 송이 해삼 등이다.

저녁 수 코스는 자연 송이 킹크랩과 제비집 수프, 자연 송이 두부, 전복 아스파라거스 등을 즐길 수 있다. 복 코스에는 자연 송이를 곁들인 건관자와 자연 송이 통전복 스테이크, 자연 송이 오동보주 등을 맛볼 수 있다.

아울러 프로모션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문의: (02)2222-8657 /황재용기자

도심에서 즐기는 낭만과 여유

특급호텔 다양한 가을 패키지 홍보전

특급호텔들이 낭만과 여유가 가득한 다양한 가을 패키지를 준비했다.

먼저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을의 풍미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을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객실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함께 고급 이탈리안 요리의 풍미를 맛볼 수 있다.

롯데호텔월드와 롯데호텔서울에서는 피크닉 박스가 제공되는 '잠 잠 연 메모리스 패키지'와 고궁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을 패키지'를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위켄드 스파 패키지'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가을 산책&오감 스파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는 휴식만을 원하는 심플족에게 어울리는 '힐튼의 가을 패키지'가 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애프터눈 티 세트와 남산 속 휴식이 제공되는 패키지를 각각 준비했다.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파리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드는 '앙상떼 프렌치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더 플라자는 가을 패키지로 '오탐 메모리즈'를 선보인다.

메이필드 호텔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리고 서울팔래스호텔과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에서도 가을의 낭만에 흠뻑 빠질 수 있다.

/황재용기자

국화축제도 보고 아시안게임도 즐기고~

'드림파크 국화축제' 20일부터 펼쳐져
청라역~축제장 셔틀버스 수시 운행

제1회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검암역과 청라역 인근의 인천 드림파크 녹색바이오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안게임으로 더욱 화려해진 전국 최대의 국화축제를 즐겨보자.

◆가을을 만나다!

올해 축제는 아시안게임 부대행사 형식으로 열리는 만큼 예년보다 축제 규모도 전국 최대로 확대되고 내용도 더욱 알차게 진행된다.

먼저 26만㎡ 규모의 축제장에는 다양한 국화들로 장식된 대형 토피어리, 분재 등이 전시되며 형형색색의 대국화를 이룬 꽃밭이 광활한 대지 위에 끝없이 펼쳐진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국화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과 국화와 코스모스 화단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 축제 기간에는 수준 높은 국화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대회가 함께 개최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와 함께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억새 군락지 ▲크고 작은 화단으로 빼어난 가을 꽃밭을 꾸민 자연학습 관찰 지구 ▲각종 야생화들이 향연을 펼치는 야생초 화원 ▲해바라기 미로 정원 등에서는 가을의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체험 가능해

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마술쇼와 지역 공개방송 등의 문화 공연을 비롯해 벗묵 체험, 전기자동차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시민 노래자랑, 학교 동아리 쇼케이스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도 빠뜨릴 수 없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과 아시안게임 관람 후 축제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캐릭터존과 스토리존 등도 조성됐다. 아울러 축제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역 농축산물 판매, 재활용 나눔 장터 등도 준비한다.

10월 4일에는 '제3회 에코필름어워즈(열린 환경영화제)'가 열리며 제4회 서구 녹청자 축제도 드림파크에서 함께 진행된다.

◆청라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축제 입장은 무료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시로 운행된다.

또 축제 기간 중 드림파크 내 경기장에서는 골프·수구 등 아시안게임 4개 종목이 개최된다. 이곳에 오는 무료셔틀버스도 운행되는데 이곳과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는 검암역에서 출발한다.

/송재준기자 hssu03@metroseoul.co.kr

세계인의 주목 인천의 명소를 찾아라!

인천도시공사, 아시안게임 맞아 '인천관광 14선' 소개

인천도시공사가 45억 인구가 주목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를 맞아 경기 관람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모아 '인천관광 14선'을 소개한다.

14개 추천 코스는 관광객이 도보로 탐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인아라뱃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등 인천의 명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먼저 테마가 있는 부평 거리에는 나비를 주 테마로 조성된 인천나비공원과 인천시민이 사랑하는 부평지하상가가 있다. 또 도심 속 휴식 공간인 부평 문화의 거리와 부평 해물탕 거리를 둘러볼 수 있다.

남동구에서는 '은가락이 즐거운 생태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은 물론 소래역사관, 소래철교와 장도포대지 등이 연결된다. 특히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는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다.

또 인천과 서울을 물길로 잇는 '경인아라뱃길 관광'과 '별그대 코스'는 인천의 새로운 매력거리다. 삼림욕을 통해 힐링이 가능한 '계양산 트레킹 여행'과 국민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덕적도 자전거 여행'은 가을여행으로 안성맞춤이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배다리 헌책방 거리 등 인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구도심 문화 체험'과 '비밥' 공연 관람을 중심으로 코스가 짜여진 '맛있는 공연 비밥'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수도 미래길 ▲국제도시에서 즐기는 도보 여행 ▲강화도 역사 문화 만보 체험 ▲중구의 멋과 맛을 찾아서 ▲백령도 두무진 관광 등도 아시안게임을 더욱 즐겁게 해줄 인천의 명소다.

/송재준기자

"엄마! 야속한 딸이지만…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메트로신문사는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티몬과 당선자의 협조를 얻어 추석 명절을 맞이 벌인 '명절 그리고 친정엄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작을 소개합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연들을 통해 가족애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전체 응모작 가운데 1등에 선정된 김정림씨의 사연입니다.

(왼쪽부터) 딸 김정림씨와 엄마 노영임씨 티몬 제공

아기를 낳고 키우다 신랑이 공부한다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시부모님께 얹혀살게 된 두 아이 엄마입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신랑 때문에 어린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냈니다. 여가생활은 꿈도 못꾸고요. 영화관에서 본 마지막 영화는 '아바타'고요.

그런데 몇 달 전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실로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뭘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시부모님께서 영화 '명량'을 보고싶다고 하시길래 함께 영화관 나들이를 했습니다. 저 역시 신이 났지요.

한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깜짝 놀라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시부모님과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준비를 하면서 전화기를 켰는데 또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 잘 있나 궁금해서 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이 바로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삼남매 중 둘째인 저는 제고는 언니와 남동생이 모두 외국에서 지내느라 그동안 제가 엄마 생신을 챙겨왔는데, 내 새끼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보니 엄마 생신을 깜박 잊고 지나칠 뻔 한 거죠.

밤 11시가 돼서 부리나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축하드린다고요.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모시며 아이 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지 말 안해도 아신다고요.

저 진짜 나쁜 딸이죠? 시부모님께는 이쁨 받으려고 영화관도 모시고 가면서 정작 친정엄마께는 투정만 부리고 기대기만 하네요. 때론 '엄마니까 이해해주시겠지' 하며 소홀하기도 하고요. 그날 밤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딸로서 엄마를 더욱 사랑하고 챙기기로요.

"엄마~ 내 마음 알죠?" 항상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합니다 ♥

"인천AG 음식, 책임진다"

공식 케이터링 공급사 '아모제푸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대회 공식 케이터링 공급 업체인 아모제푸드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있다. /아모제푸드 제공

국제적인 행사일수록 주목을 받는 것들이 있다. 원활한 행사 운영과 쾌적한 경기장, 관람 환경, 주변 관광여건, 교통과 치안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식사 문제다. 분초를 다투는 경기 현장에서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은 승패를 판가름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외식기업 아모제푸드(회장 신희호, www.amoje.com)가 19일 개막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대회급식분야의 서플라이어급 후원사로 선정됐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개월 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모제푸드 측은 지난 5월 19일과 6월 1일, 8월 20일 총 3차례에 걸쳐 선수와 임원 급식 품평회를 열었다. 이 품평회에는 급식전문위원을 비롯해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경기 운영요원, 미디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호평을 받았다.

아모제푸드는 9월 12일부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는 약 한 달여 동안 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선수단과 각국 미디어 관계자 등 약 1만30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또 MMC(Main Media Center) 및 각 경기장의 식음료 코너도 운영해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다.

아모제푸드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45개국 선수들의 국가·종교와 지역을 고려한 메뉴를 24시간 제공한다.

선수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식·한식·중식·일식·태국식·베트남식·인도식·이슬람식 등 약 437종의 메뉴를 5일 주기로 바꿔 제공한다.

특히 참가 선수들의 약 40%에 해당하는 이슬람교도들을 위해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자킴(JAKIM)의 인증을 받았다.

대회 기간 측의에서 초빙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무슬림 요리사 2명이 독립된 공간에서 매 끼 약 8가지의 할랄푸드를 조리한다. 할랄 도시락도 마련했다.

아모제푸드는 1994년부터 축적해 온 외식 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7년 인천국제공항F&B 사업, 2012년 여수엑스포 F&B 총괄 운영을 한 바 있다. 지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영일기자 jymo@metroseoul.co.kr

'인천AG 한국 응원'… 육포 40% 할인

강강술래, 돈가스 등 먹거리도 저렴하게
독서의 계절 길벗 도서 증정이벤트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인천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를 최대 42%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쇼핑몰(sull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육포 소박스(50g×10봉)는 3만6000원, 대박스(50g×30봉)는 7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고객들을 위해 보양식 100% 한우사골곰탕과 인기 먹거리 돈가스도 40% 파격가로 선보인다.

곰탕 대용량박스(800g×6팩·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g×10팩·20인분)는 3만7800원, 100% 국내산 돼지 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 돈가스(3세트·2.16kg)는 3만24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길벗의 도서도 증정한다. '공감하는 능력'과 '세븐스터디 영어명언 100강' 두 권이다.

'공감하는 능력'은 공감 전문가인 로먼 크르즈나릭이 인간관계의 핵심역량인 공감능력의 중요성과 이를 키우는 6가지 습관을 쓴 책. '세븐스터디'는 공자와 소크라테스 등 위대한 지성들의 지혜가 담긴 영어 명언을 동영상에 담았다.

/정영일기자

"골프 아시안게임 3연패 응원"

엘로드 'WAAC' 이벤트 진행

코오롱FnC 골프 브랜드 엘로드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골프 국가대표팀의 3연패를 응원하는 'WAAC(Win At All Costs: 반드시 승리한다)' 이벤트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28일까지 전국 엘로드 매장에 비치된 메시지 카드에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엘로드 공식 페이스북에서 응원 댓글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1등 1명에게는 엘로드 클럽 '2014IRON M6' 풀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2등 3명에게는 엘로드 WAAC 캐디백을, 3등 30명에게는 엘로드 WAAC 드라이버 커버를, 4등 100명에게는 엘로드 WAAC 볼마커를 선물로 준다.

당첨자는 다음 달 6일 엘로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다. /박지원기자

테팔, 결식 아동 돕기 바자회

가정용품 브랜드 테팔은 18일 서울 무교동 어린이재단 본부 앞 광장에서 '테팔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결식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테팔 사랑 나눔 바자회는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이날 바자회에는 테팔의 전 임직원들이 참여해 프라이팬, 냄비세트, 믹서기, 무선주전자, 커피메이커, 토스터 등을 특별한 가격에 판매했다.

테팔은 이번 바자회에서 모금된 판매 수익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 결식아동을 후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테팔은 사랑 나눔 바자회를 비롯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름다운가게,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단체와 협력해 주변 이웃들을 위한 가정용품을 후원하고 있다.

18일 다솔어린이집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봉경민 대표와 직원들이 결식 아동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희망트리에 달고 있다. /테팔 제공

/박지원기자

9월,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원주 여행

역동하는 강원! 춤추는 원주! 2014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 댄싱카니발

132개팀 10,021명의 참가자들이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아시아의 리오! 댄싱카니발이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따뚜공연장과 원일로, 장미공원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따뚜공연장 특설무대에서는 플루트와 함께하는 클래식의 날, 원주시민들과 함께하는 합창의 날과 한국전통의 날, 군악의 날 공연이 진행되며 젊음의광장 일대와 대형버스주차장, 따뚜공연장 내에서는 먹거리장터, 군 문화 체험전, 그린세이프 놀이터, 다이내믹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2014년 가을,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을 통해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보자!

일정 2014.9.17(수)~9.21(일)
장소 원주 따뚜공연장, 원일로, 일원, 장미공원길
문의 다이내믹페스티벌운영사무국 033)763-9402

댄싱카니발 Best 15 최종결선
18:30~21:30 따뚜공연장 9월 21일(sun)

원주 허브팜

1,000여종의 식물들이 피고 지는 강원도 최대 식물박물관으로 밤에는 수천개의 LED빛으로 반짝이는 정원을 산책하고 향기로운 허브족욕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보자!

주소 강원도 원주시 마장2길 33 **전화** 033)762-3113

뮤지엄 산

사계절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품에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만날 수 있는 전원형 박물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며 여러가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전화** 033)730-9000

간현 원주 레일파크

구 간현역에서 판대역을 오가는 코스로 철도를 따라 아름다운 섬강의 비경과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소금산의 멋진 절경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63 원주레일바이크 **전화** 033)733-8800

대한극장에서 응원할까 아프리카TV로 볼까

롤드컵 200% 즐기는 법… 조별예선 이벤트 풍성

2014 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막이 올랐다.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 조별 예선 경기를 1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선 경기에는 삼성 화이트가 우리나라 대표팀 중 가장 먼저 출격한다.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미, 유럽, 중국에서 3개팀씩, 대만·동남아시아 2개팀, 브라질, 터키·러시아, 호주·라틴아메리카에서 선발된 2개팀 등 총 16개팀이 참가한다. 대결 방식은 월드컵과 같은 토너먼트다. 이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대회는 게임 약자 '롤(LoL)'과 '월드컵'을 본딴 애칭 '롤드컵'으로 불린다.

올해 조별 예선 경기는 대만 NTU 스포츠 센터와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8강 이후 경기는 우리나라 부산과 서울에서 열린다. 8강전 개최지는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4강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장소는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6만4000명으로 지난해 결승전 장소였던 미국 스테이플스 센터의 관중 1만1000명 기록을 충분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다채로운 롤드컵 행사도 속속 열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렸던 롤드컵 결승전

라이엇게임즈는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조별 예선 경기를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생중계한다. 대한극장 현장 관람 이벤트는 각각 18~21일과 25~28일에 열린다. 라이엇게임즈는 경기 생중계뿐 아니라 매일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빙고 게임, 포로존볼 퀴즈 등의 현장 이벤트를 병행한다. 당첨자는 게임 이머챔과 캐릭터 의류 등의 게임 기념품을 받는다.

SNS 플랫폼 아프리카TV는 롤드컵 특집 페이지를 열고 이색 인터넷방송 중계와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서비스한다.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승패예측 이벤트도 연다. 게임전문채널 온게임넷과 인터넷TV 티빙은 롤드컵 채널을 따로 편성하고 미리보는 롤드컵 핫스타 와 '롤드컵 인사이드' 등 정기적으로 방송한다.

SK텔레콤은 자사 모바일 중계 애플리케이션 'T LoL'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T LoL 롤드컵 피버타임 프리' 이벤트를 열었다.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초대 메시지를 받은 친구 중 최소 2명 이상이 T LoL 앱을 사용하면 전체 참여자 모두 'T LoL 프로모션 팩'에 자동으로 가입돼 연말까지 데이터 과금 없이 무료로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은 전세계 시청자 수 3200만명, 최고 동시 접속자 수 750만명을 기록해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SKT T1이 최종 우승하며 e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는 우리나라에서 112주째 1위를 수성하고 있다.

권정현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롤드컵에 대한 e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크게 느껴진다"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 세계적인 스포츠 경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unique@metroseoul.co.kr

"나도 게임전문가 도전"

NHN엔터, 10월5일까지 공채

게임전문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다음달 5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SW개발, IT인프라, IT 보안 등 기술부문이다.

지원자격은 2015년 2월 또는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기졸업자다. NHN엔터테인먼트 채용 홈페이지(recruit.nhnent.com)에 접속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NHN엔터는 이번 신입사원을 '2기 토스트 루키(TOAST Rookie)'로 명명하고 회사의 미래를 이끌 IT 기술 전문가로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 공채 때 도입해 호평을 받은 '필 더 토스트(Feel the TOAST)' 전형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필 더 토스트'는 지원자가 회사 생활을 먼저 경험해 보는 일일 근무 체험 면접 방식이다. 현직 선배 직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해 자리를 배정받고 하루 동안의 일과와 회의를 함께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게 된다.

한편 NHN엔터는 '2기 토스트 루키' 선발 홍보를 위해 주요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캠퍼스 리크루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모바일게임 잡는다" MMORPG 삼각편대 출격

'검은사막' 실감나는 전투 압권
'메이플2' 한류게임 계보 잇는다
'최강의군단' e스포츠화도 추진

모바일게임의 거침없는 진격을 숨죽이며 지켜봤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 반격에 나섰다.

'검은사막' '메이플스토리2' '최강의군단'으로 구성된 삼각편대를 앞세워 게임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 '검은사막' 23만명 테스트 신청 기염= 선공에 나선 게임은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다음게임의 '검은사막'이다. 'R2' 'C9' 'C9' 제작자로 유명한 김대일 펄어비스 대표의 신작으로 알려지면서 28일까지 진행되는 마지막 테스트(CBT)에 무려 23만 명이나 신청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세 유럽풍의 사실적 배경과 실감나는 전투 점령전, 개방된 세계관 등이 게이머들에게 호평을 받은 덕분으로 보인다.

검은사막은 테스터에 선정되지 못한 회원을 위해 20일부터 전국 5800여 곳 '검은사막' 체험 PC방에서 제한 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메이플2' 알파 테스트로 첫선= 전세계 1억 회원수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한류게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도 후속작 '메이플스토리2'로 재단생했다. 21일까지 알파 테스트를 통해 게이머들을 처음 만난다. '메이플스토리2'는 쿼터뷰 방식의 풀 3D MMORPG로 블록으로 구성된 독특한 세계에서 개성 있는 캐릭터를 꾸미고 다이내믹한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나이트와 프리스트, 위자드, 레인저, 어쌔신 등 총 다섯 가지의 직업을 선택해 최고 25 레벨까지 주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넥슨은 28일까지 게임에 대한 의견·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버그 제보를 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메이플스토리2' 캐릭터 상품을 선물한다.

◆ '최강의군단' 26일 공개서비스 돌입=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로 유명한 김윤종 사단의 액션 완결작 '최강의 군단'도 MMORPG의 반격에 힘을 보탠다. 에이스톰은 '최강의 군단' 공개서비스(OBT)를 26일 시작할 예정이다. '최강의 군단'은 마우스만으로도 모든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대4로 전투를 벌이는 PvP(플레이어간의 대결) 모두인 MFL(Monday Fight Live)를 추가해 15분 이내에 플레이를 끝낼 수 있다. 에이스톰은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리그오브레전드(LoL)' 아성에 맞설 e스포츠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illegible]

내년 예산 5.7% 늘어난 376조… 보건·노동·복지에 115조 투입

경제 살리기 '슈퍼 예산'

정부의 강력한 경제살리기 의지를 반영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에 해당된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예조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문주영기자 (이메일)

박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 관세율 513%…내달 WTO 검증

정부는 18일 내년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kg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303원에서 38만80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177원에서 52만2134원으로 수입가가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 513%를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관세철폐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책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자리에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난입, 보고가 한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현정기자

자사고 진흙탕 싸움, 수습이 먼저다

기자 수첩
윤다혜 <정치사회부 기자>

26일부터 지정취소 대상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하지만 8개 자사고 측은 청문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사고 문제로 교육당국이 진흙탕 싸움까지 번지면서 서울 교육은 대혼란에 빠졌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11일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재협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또 다시 반려하면서 법정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를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다음 달까지 교육부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 취소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대립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조 교육감은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

새정치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관리형 리더십 선택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문희상(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새정치연합은 18일 국회에서 원로·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의장(당대표)을 지낸 5선 의원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돼 대선 패배로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했다.

새정치연합이 문 의원에게 또 다시 비대위원장의 중책을 맡긴 것은 과도기에 계파 색채가 옅고 정치 연륜과 관록을 겸비한 관리형 리더로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결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19일 박영선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아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美, 한강 이북에 '210 화력여단' 잔류 표명

● 미국이 최근 주한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을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지난 16~17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이런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 "IS 한국인 여부 파악 불가"

● 국가정보원은 18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한국인 출신이 있다는 IS 조직원 주장을 전한 CNN 보도와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려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북한과 시리아의 관계가 가까우니 만약 한국인이 IS에 있다면 북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에 계란 투척 시의원 '조처' 요청

●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경남 창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을 던진 자당 소속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경남도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8일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경남도당에 접수됐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해당원협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받고, 해당 시의원의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 삭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어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지만, 은퇴자에게도 재정 안정화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즉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우발적 범행"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임 병장 측은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병장 측은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하늘 반, 구름 반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이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에서 바라본 하늘이 구름으로 반반씩 나뉘어 있다.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 한반도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고 남부지방은 맑겠다. 뉴시스

첫 단풍 평년보다 1~4일 늦을 듯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평년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에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서는 다음달 3~18일, 남부지방에서는 다음달 14~27일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단풍은 하루에 20~25㎞씩 남쪽으로 이동해 설악산과 전남 해남에 있는 두륜산의 단풍 시작 시기는 한달 정도 차이를 보인다.

산의 80%가 단풍이 드는 절정 시기도 평년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은 다음달 18일, 지리산은 다음달 21일, 내장산은 11월 7일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돼 첫 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가 평년보다 1~4일 정도 늦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서울우정청,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대포통장 피해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부터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우선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우체국에서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나 의심거래자 유형에 대해서는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또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봉쇄한다.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을 허용하고, 현금 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발급한다. 통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장을 지급 정지 한다.

신속 정확한 사고신고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전담팀도 신설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이밖에도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매월 대포통장 근절 홍보의 날(매월 3번째 수요일) 운영하는 등 대포통장이 근절될 때까지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 광장에서 서울지방우정청과 서울중앙우체국 직원들이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metro HongKong

metro France

헤어진 여친에 5일간 2900번 전화

프랑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5일간 3000통의 전화를 한 남성이 체포됐다. 21세의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5일간 2900통의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전화 580통을 걸었다는 의미다. 피해자는 반복되는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남성을 신고했다.

metro Brazil

월드컵 수혜 불구 소매시장 저조

지난 7월 기준 브라질 소매 판매량이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2008년 10월 이래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이며 소매 시장이 월가의 외환가 에는 아직 여파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7월은 이번 월드컵으로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동월 대비 0.9%가 상승하는데 그쳐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metro Russia

설인이 미녀를 유혹? 존재 입증 논문 눈길

최근 러시아연방 코미공화국 국립 공원의 알렉산드르 말라케예프 박사가 코미 원시림에서 발견된 설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말라케예프 박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설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난 2000년에 설인의 존재에 관한 첫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미 원시림 탐사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설인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면서 "발자국의 길이는 46cm, 깊이는 3cm로 온전하게 보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발견된 발자국을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설인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며 "발자국을 통해 설인이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말라케예프 박사는 설인이 미녀를 좋아한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내놨다. 예로부터 설인이 미녀를 납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로 우리 연구 조사팀의 미녀 간호사 스베틀라나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탐험대원 모두가 자유 시간에 버섯을 채집하러 간 일이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빈 바구니로 돌아왔지만 스베틀라나만 누군가에게 이끌려 바구니 가득 버섯을 따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말라케예프는 "설인도 인간처럼 성장하고 나이를 먹는다"며 "2008년에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설인의 발자국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롭게 발견된 설인 발자국은 60cm며 2002년도에 발견된 설인이 성장해 발자국도 함께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일로나 브브르베치 기자 · 정리=조선미 기자

100년 된 목욕탕 역사 속으로…

베이징 토박이들 몸담그고 차 마시던 '놀이터'… 경영난 악화로 문닫아

중국 베이징 토박이에게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등을 민 뒤 차엽들과 차를 마시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이징의 신위안 목욕탕이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돼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신위안 목욕탕은 베이징 시청구의 조용한 골목에 있다. 손님은 대부분 근처에 사는 주민이다. 붉은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파 두 개가 있고 양쪽으로 남자·여자 목욕실이 따로 있다. 이 곳은 베이징의 초기 목욕탕 중 하나로 청나라 광서연간(1875~1908년)에 세워져 100년도 더 됐다.

목욕탕 직원은 "당시 신위안 목욕탕은 명성이 자자했고 영향력 있는 장소였다. 1928년 주인이 바뀌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점잖게 유명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다. 1956년 민관이 합작해 국유기업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목욕탕의 역사를 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목욕탕 이용료는 2.6위안(약 440원)에서 현재의 15위안까지 올랐다.

한 주민은 "지금은 집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지만 이웃들과 매주 월요일에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습관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아쉽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장소는 보존돼야 한다"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는다. 가격을 올려도 괜찮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사 간 후에도 신위안 목욕탕에 온다는 여성은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면 옛 이웃들을 만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고 목욕탕을 찾는 이유를 밝혔다.

70세 장모 노인의 기억 속에 목욕탕은 만담을 나누고 장기와 귀뚜라미 싸움을 하는 장소다. 그는 "몸을 불리고 친구들과 때밀이 침대에 누워 세신사(목욕 관리사)를 기다리곤 했다. 손님과 세신사 모두 골목의 이웃들이어서 목욕을 하며 집안 대소사며 정치 얘기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베이징에는 100년의 역사가 있는 목욕탕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업종을 바꿔 남아있는 곳은 많지 않다. 수도세와 전기세 등이 크게 올라 문을 닫았다. 신위안 목욕탕도 숙박 시설로 바뀐다. /정리=조선미 기자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코스닥
2047.74 (-14.87)	578.97 (+1.89)

금리	환율
2.37 (변동 없음)	1038.50 (+4.50)

뉴스&뉴스

(사진)왼쪽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현대차그룹 정진행 사장이 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동반성장 500억 출연

● 현대·기아차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5년간 500억원을 출연한다.

현대·기아차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 현대차그룹 정진행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투자재원 500억원 출연 협약식을 진행했다.

현대·기아차는 1년에 100억씩 5년간 총 500억원을 출연해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제조업의 정보통신기술 접목 등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동반진출 지원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유현석기자

한화, 아시안게임 불꽃 연출

● 한화(대표 심경섭)는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및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불꽃연출에 이어 오는 19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서도 불꽃 연출을 담당한다.

한화는 지난 1964년 불꽃사업을 시작한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APEC 정상회담' 등의 행사에서 다양한 불꽃 연출을 선보인 바 있으나 19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식순에 맞춰 5분여간 불꽃이 연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숫자나 텍스트를 형상화한 불꽃, 도미노 형태의 불꽃 등을 선보인다. 또 K팝 스타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듯한 피날레 불꽃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김세균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길○○, 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01
2005년 5월 26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6

한국판 '아우토슈타트' 조성

현대차그룹, 한전 부지 10조 5천억에 낙찰
자동차 테마파크·호텔·백화점 설립키로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새 주인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계열사를 아우르는 신사옥을 짓고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독일의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전은 18일 부지 입찰 결과 현대차그룹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낙찰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10조5500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지 감정가(3조3346억원)의 3배 수준이다.

입찰에는 현대차그룹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 컨소시엄과 삼성전자 등 13개 응찰자가 참여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2020년께 주요 계열사가 한 공간에 모두 입주하는 삼성동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10조5500억원은 입찰 경쟁자인 삼성전자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한전부지에 계열사를 컨트롤할 초고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의 본사 '아우토슈타트'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현대차는 신사옥뿐 아니라 자동차 테마파크와 고급 호텔, 백화점 등도 부지에 함께 지을 방침이다.

현대차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해외행사를 유치하는 방식 등으로 연간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유입하겠다는 계산이다.

현대차그룹과 경합을 벌였던 삼성전자의 '테헤란로 ICT 허브'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한전부지를 첨단 ICT 산업 인프라와 대규모 상업시설, 다양한 문화 공간이 결합된 ICT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역 서초 사옥에서 삼성역 테헤란로에 이르는 강남 요지의 처음과 끝을 잇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전부지에는 흩어져 있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들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일단 차질이 생겼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삼성SDI, '런던 100% 디자인' 전시회 참가 삼성SDI 소재부문이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 100% 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해 '위빙드라이브'를 테마로 전시를 펼친다. 올빼미를 준상화한 스피커 등이 눈길을 끈다. /삼성SDI 제공

'갤럭시 노트4' 예약가입 실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에 대한 예약가입을 18일부터 시작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일제히 이날 오전9시부터 25일까지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4의 사전 예약가입에 나섰다. 갤럭시 노트4의 가격은 9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갤럭시 노트4 예약가입은 공식 온라인 샵인 'T월드 다이렉트' 또는 대리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가입은 3000원 완결으로 진행되며 갤럭시 노트4는 택배로 배송된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예약가입자를 대상으로 개통 후 프로모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삼성 정품 S뷰 커버와 휴대용 배터리 팩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 중 750명에게는 몽블랑 전용 케이스 또는 펜을 추가 증정한다.

KT에서 갤럭시 노트4 예약가입을 하려면 KT대리점 및 온라인 공식 채널 '올레샵'을 이용하면된다. KT의 갤럭시 노트4 예약가입은 간단한 서식지 작성으로만 가능하며 예약가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 이후 14일간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

"KT 이동전화·인터넷 품질 국내 최고"

'한국품질만족 지수' 2개 부문서 1위 기업으로 선정

KT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이용 고객들로부터 국내 최고임을 인정받았다.

KT는 '201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2개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한 품질 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해당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종합 지표다.

KT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선언하고 경영진부터 현장 직원까지 '싱글 KT'로 힘을 합쳐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광대역 LTE-A ▲기가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등 기가 시대를 선도하는 자세다. 고품질 네트워크와 ▲스펀지 플랜 ▲전무후무 멤버십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했다.

한준서 KT 마케팅부문 통신사업담당 상무(왼쪽)와 한국표준협회 회장, 동국대 백수현 석좌교수(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제공

특히 이동전화 부문에서 1위 선정은 타사보다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 구축 ▲일반 와이파이보다 3배 빠른 '올레 기가 와이파이' 제공 ▲2만원대 요금으로 유·무선 음성 무제한 통화와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는 '완전무한(LTE)' 요금제 ▲스펀지 플랜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KT측은 설명했다.

또 국내 최다 가입자를 확보한 '올레 인터넷'은 광통신망이 전화국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100% 연결된 FTTH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고객 혜택을 극대화한 '올레 인터넷 다이렉트'를 출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반을 확보, 국내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이재영기자

매일 아침 흔들리는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초근접 직장 리얼리티
오늘부터 출근
매주 | 토 | 밤 11시 10분 tvN / 9월 20일 첫방송

상처만 남긴 KB사태 과제는?

오늘 이사회서 새 회장 선임 논의…고객 신뢰회복 급선무

4개월간 이어진 'KB 사태'가 임영록 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의 퇴진으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KB 내부 당사자들은 조직과 고객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대립했다. 결국 승자는 없고, 패자와 상처만 남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은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은 이날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사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친 결정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임 회장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의 소송전은 남아있지만 KB금융의 경영 혼란은 점차 안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선임 절차에 들어가는 차기 수장은 당국과 화해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9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기 회장 선임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차기 회장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은 배제 1순위에 꼽힌다. 따라서 전·현직 KB금융 고위직은 중심으로 후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중에선 KB금융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웅원 부사장(54)과 국민은행장 직무대행인 박지우 부행장(57)을 가장 먼저 거론된다.

KB 출신으로는 윤종규 전 지주 부사장(59)을 비롯해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58), 김기홍 전 부행장(57), 최원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58) 등이 후보군에 꼽힌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정부에서 정권 창출에 기여한 금융인이나 전직 관료를 KB금융 회장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외부인사로는 이동걸(66)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종휘(65)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조준희(60) 전 기업은행장, 오갑수(66)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역시 급선무다. 도쿄지점 부실대출,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자 고객들의 KB금융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또 KB금융의 '리딩뱅크' 위상을 회복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편 금융당국은 18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긴급 금융관계기관회의를 열고, KB금융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KB지주의 경영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되고 정상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연지기자 zen1@metroseoul.co.kr

연내 자유납 보험 배타적사용권

한화생명 3개월 독점 인정

한화생명은 월 보험료를 연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The 따뜻한 Free연금보험'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말 생보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한화생명은 이로써 3개월간 해당 보험의 판매를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연내 자유납은 고객이 매년 납입할 연간 보험료를 설정한 뒤 가입 1년 이후에는 고객이 편리한 시점에 연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에 한화생명은 수입이 불규칙해 월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섭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최대화 시켜, 소득 불규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화 한 상품"이라며 "고객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한화생명이 보유한 배타적사용권은 업계 최다인 총 11개로 늘어났다. 현재 경쟁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0개, 미래에셋생명과 KDB생명은 각각 5개의 배타적사용권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은퇴준비형 랩어카운트 판매

유진투자증권, 의무 납입·거치·수령기간 없어

유진투자증권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후 대비를 위해 기존 연금상품을 보완한 은퇴준비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 개개인의 나이와 자산,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최소 의무 납입·거치·수령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존 연금상품의 특성을 개선한 상품이다.

또 중도 해약시 높은 해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존 연금상품과 달리 이 서비스는 3년 경과시 해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저 0.5%에서 최대 1.5%의 수수료만 부과된다.

또 가입고객이 연 0.59%의 수수료만 내면 전금운용역이 정기적으로 편입 펀드를 점검하고 우수 펀드로 교체해준다.

월간 운용보고서와 정기 모니터링과 같은 사후관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3년이 경과하면 랩 수수료가 연 0.39%로 인하된다.

설재효 상품지원팀장은 "판매 보수가 없는 랩어카운트 전용 펀드로 비용을 최소화했으며 "비용을 절약한 만큼 고객의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상품을 설계했으므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장기 납입에 대한 부담이나 혹시 있을지 모를 중도 해지시의 불이익 때문에 기존 연금상품을 주저한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1588-6300)와 전국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auguralMeeting &

수출입銀, '동북아 수은협의체' 기본협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 11일 중국 연변에서 개최된 동북아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총회에 참석해 '동북아 수은협의체' 발족을 위한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수은협의체란 동북아 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금융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GTI 회원국의 ECA(공적수출신용기관)간 협의기구다.

여기에는 한국 수은과 중국 수은,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몽골 개발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 역내 양자·다자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협조융자 추진, 회원은행간 사업 정보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동북아 수은협의체가 이번 기본협약 서명을 계기로 역내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동북아 공동번영을 추진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우 는우리 은행장(오른쪽)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1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위한 MOU

우리은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해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불법체류 등으로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되고 있는 자금이다.

이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 해당국가와 연계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앞으로 2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을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휴면보험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순우 은행장은 "보험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전산시스템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단의 고유기능인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정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금융 동반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채대연기자

'기술평가기반대출' 지원

IBK기업은행은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기술평가기반대출'을 기존 500억에서 56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술평가기반대출은 ▲창업지원 ▲성장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으로 구분되며,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술신용 평가수수료를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술평가기반대출로 우수기술 보유기업 및 기술기반형 창업기업을 지원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대연기자

"고객의 한 마디가 경영을 바꿉니다"

삼성카드 고객인 김종윤씨는 평소 청각장애 아이들의 교육은행 계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단순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바로 삼성카드의 열린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이 프로젝트는 고객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다른 고객들이 투표해 함께 실현해 가는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당 최대 3000만원의 나눔 사업비가 지원된다. 기존의 사회공헌이 수동적으로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 이젠 고객을 주체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고객이 제안하고 금융사가 함께 바꾸는 모습은 금융권 전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고객 패널 활성화를 통해 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업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객에 은행의 통합금융 상품을

금융권, 상품 개발·아이디어 공모 등 고객 패널 통해 '소통 강화'

만들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을 직접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최근 제2기 고객패널 10명을 조정해 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고객패널들은 농협은행에 대한 장·단점을 직언하며 고객들이 바라보는 농협은행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2기 고객패널들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제안, 설문조사, SNS 홍보활동 등의 미션을 수행했다. 농협은행은 이들이 제시한 제안 가운데 538건을 해당부서로 이첩, 심사와 정책반영 중에 있다.

이 중 인터넷뱅킹의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계좌검색기능과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더고객 이벤트 등은 이미 정책에 반영됐다.

고객의 아이디어를 공모전으로 받는 곳도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신한은행의 '2014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이 바로 그 주인공. 신한은행은 고객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고객은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 개발시 시장분석과 상품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롯데카드는 재도약을 위한 혁신 챌린지 점프 업(Jump up) 2015' 행사에 고객패널을 조정해 '듣다-바꾸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된 고객패널은 '고객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쉬운 카드 네이밍', '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 롯데카드에 대해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듣다-바꾸다' 캠페인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배우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기동해 앞으로 경영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KB국민카드는 오는 10월 약 1000명으로 구성된 고객자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카드를 실제 사용해 불편했던 점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은행·증권 복합점포 영업 개시' NH농협은행은 18일 농협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 1층에서 여의도증권타운지점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김주하 농협은행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여의도증권타운지점 개장식에서 참석해 테이프컷팅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하이 공모&배당주' 추천

저변동성 주식·우량채권 동시 투자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유망투자대상으로 떠오른 공모주와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 공모주&배당주 1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를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주식을 펀드 순자산의 10%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공모주와 배당주,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선별해 투자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올 한해는 공모주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분기 인터파크INT가 성공적으로 상장한 데 이어 5월 국내 편의점 1위 업체 CU 운용업체인 BGF리테일이 성황리에 공모주 청약을 마치면서 개인과 법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삼성SDS, KT렌탈, 이랜드리테일, 현대오일뱅크, SK루브리컨츠 등 주요 그룹사의 대형 계열사들의 상장이 예측되는 상황이라 공모주 투자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배당주 역시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방안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수요국 대비 낮은 수준의 국내 기업 배당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고상현 하이투자증권 과장은 "공모주 펀드는 주식편입비가 낮아 공모주식 편입비율이 제한적이지만 기업공개(IPO) 주식의 기관 배정 물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 투자를 통해 공모주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공모주 청약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공모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 편입 비중 결정과 매도타이밍을 운용회사가 결정하는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이자산운용의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우수한 편이다.

'하이 공모주 플러스 10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의 최근 1~2년 성과는 지난 15일 기준 각각 5.69%, 9.32%(Class-A)로 업계 공모주 펀드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현정기자 hkim1@

배분형 펀드 랩 활용 자산관리 제시

동양증권, MY W 크레센도 랩 주목

동양증권은 글로벌 자산배분형 펀드 랩 상품인 'MY W 크레센도(Crescendo) 랩'이 주목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이 상품은 국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 글로벌 인컴 등 다양한 자산별 유망펀드에 투자한다.

자산배분전략을 통해 상대적 투자매력을 측정함으로써 개별 자산의 리스크를 낮추고 포트폴리오 수익을 추구한다.

자산별 유망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비중을 결정해 상품 운용에 반영한다.

현재 이 상품의 랩 포트폴리오는 저금리 시대에 대안으로 부상한 글로벌 인컴 펀드와 벤치마크 대비 성과가 좋은 국내외 주식형 펀드를 포함, 총 8개 펀드에 대한 분산 투자로 구성됐다.

최근 수익률(랩 수수료 차감 후 세전 수익률)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1개월 0.44%, 3개월 2.83%, 6개월 5.07%, 12개월 9.57%였다.

1년 최고 수익률은 10.89%, 최저 수익률은 -2.51%로 집계됐다. 코스피지수의 최근 12개월 수익률 1.4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동양증권 강수형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적극적인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수익률 향상을 위해 동양증권 상품기획팀과 리서치센터, 펀드운용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전략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목표전환 수익률(7~12%)을 선택할 수 있는 목표전환형과 별도의 목표전환수익률 지정 없이 가입하는 일반형으로 나뉜다.

최소가입금액은 목표전환형은 500만원, 일반형은 100만원이다.

수수료는 연단위 선취 1.0%와 분기별 후취 연1.0%이다.

동양증권 전국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중도환매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팀 쿡 체제 애플, 소비자 중심 움직임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서 팀 쿡의 애플로 변화하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애플은 17일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애플 디바이스로 옮기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한 자료를 공개한데 이어 18일 공유 기능을 강화한 운영체제 최신 버전 'iOS8'을 업데이트해 배포했다.

그동안 애플을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폐쇄적 기업이라는 편견을 깨기위한 노력도 묻어난다.

이번에 공개된 iOS8 버전은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가족 공유(패밀리 셰어링) 기능은 가족(최대 6명)이 아이디를 따로 만들면서도 아이북스, 앱, 음악, 영화를 공유해 볼 수 있다. 아이폰 4s 이후 모델, 아이패드2 이후 모델, 아이팟터치 5세대에서 쓸 수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애플은 최근 공개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크기를 다양화해 사용자들의 선택 폭도 늘렸다. 4.7인치 아이폰6는 5.1인치 갤럭시S5와, 5.5인치 아이폰6플러스는 5.7인치 갤럭시 노트4와 각각 경쟁구도를 이룰 전망이다.

애플은 이같은 적극 정책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임을 또다시 입증하고 있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첫 24시간 예약 주문량이 400만 대를 돌파해, 2년 전 아이폰5 출시 후 72시간 만에 세운 기록을 넘어섰다. /정지은기자 ysw@

휘발유값 하락세 이어질 듯

내전 이라크산 원유 수입 줄어도 두바이유 가격은 하락

이라크 내전이 격화되면서 지난 7월 이라크산 원유 도입량이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석유공사가 18일 발표한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 자료를 보면 7월 이라크산 원유 도입량은 536만9000 배럴로 지난해 7월(899만3000 배럴)보다 40.3% 급감했다. 올해 6월의 623만8000 배럴과 비교해도 13.9% 줄었다.

대신 부족한 수요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분산됐다. 7월 카타르산 도입량은 1035만9000 배럴로 지난해 7월(660만 배럴)보다 57.0%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카타르산 수입량은 사우디·쿠웨이트·UAE·이라크에 이어 5위에 그쳤지만 올해 3위로 올라섰다.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산 도입량도 2515만1000 배럴로 지난해보다 10.1% 늘었다.

이라크 내전에도 중동산 원유(두바이유) 가격 하락세는 계속 이어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 도입 원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16일 배럴당 94.94달러로 올해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내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해 최저가는 이미 지난해 최저가인 배럴당 96.71달러보다 약 2달러 내려간 셈이다.

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지난해 105.56 달러에서 올해 103.91 달러로, 내년에는 101.71달러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는 "달러화 강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떨어졌고, 미국이 셰일오일 등 비전통오일 부문에서 원유 생산을 확대해 재고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빅데이터로 국가 미래전략 수립"

미래부·NIA, 미래전략센터 개소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자 기존 빅데이터 전략센터를 미래전략센터로 확대 개편, 18일 개소했다.

미래전략센터는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운영하며 미래 예측·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보화진흥원은 "세계적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안전 위협요소와 주변 환경 변화를 탐지하는 싱가포르 RAHS, 세계 최초의 오픈데이터 전문 연구소인 영국 ODI와 협력관계를 맺고 세계적인 미래전략 연구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센터 개소식과 함께 NIA-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금융연구원 등 6개 기관 간 '미래연구 공동협력 선언식'도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미래연구 전문기관 간 긴밀한 연구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간 미래전략수립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공동연구 아젠다 개발, 중장기 국가사회 현안분석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칠판 '빅노트' 18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 2기 선과정 토론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칠판 '빅노트'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워서플라이 최대 15% 할인

컴퓨터주변기기 및 올인원PC 전문기업인 한미마이크로닉스(대표 김현민)는 대용량 고효율 파워서플라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II 700W +12V 싱글레일 85+'를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할인 특가 판매 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II 700W +12V 싱글레일 85+는 한미마이크로닉스의 베스트셀러 제품군인 클래식 II 시리즈의 대용량 모델로 액티브 PFC회로를 채택해 역률과 효율을 개선해 최고 85%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에너지절약 친환경 제품이다. PCI-E 6+2 6PIN을 4개까지 지원해 2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발열부분은 경쟁제품 대비 압도적인 성능으로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II 시리즈는 500W·600W·700W 총 3개의 [illegible] 있으며 2013년 2월에 출시돼 액티브 PFC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한미마이크로닉스의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15일까지 한 달 동안 모든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가격은 기존 6만4000원에서 7000원 인하한 5만7000원(가격비교 최저가 기준)이다. /김승호기자 ksw@

벤츠 S클래스 맞서 '플라잉스퍼 V8' 공개

대형세단 고객 노려… 가격은 2억5000만원부터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가 럭셔리 세단 플라잉스퍼 V8을 18일 한국 시장에 선보였다.

올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벤틀리 플라잉스퍼 V8은 4.0ℓ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한 럭셔리 4도어 세단으로, 프리미엄급 세단에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고객층을 노린다.

벤틀리의 4.0 트윈터보 엔진은 507마력의 최고출력과 67.3kg·m의 최대토크를 제공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295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은 5.2초다.

V8 엔진은 실린더 비활성화 기술, 지능형 엔진 온도 관리, 에너지 회수 기술 등이 적용되었다. 한 번 주유로 840km를 주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연비는 10.5km/ℓ, 복합 연비 7.4km/ℓ, 도심 연비 5.9km/ℓ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V8이 18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공개됐다.

상위 플라잉스퍼 W12와 동일하게 4륜구동 시스템과 ZF 8단 자동 기어를 채택했다. 또한 V8은 컴퓨터 제어 방식의 독립형 에어서스펜션으로 충격 흡수와 완화 성능을 극대화했다.

플라잉스퍼 V8은 기존 12기통 플라잉스퍼와 다르게 8자 모양의 크롬 배기 테일 파이프를 달았다. 벤틀리의 날개 배지는 레드 에나멜의 B로고가 중앙에 놓여 있다.

리어 콘솔 하우징에는 신형 터치스크린 리모컨(TSR-Touch Screen Remote)이 장착돼 온도 조절과 시트 히팅, 시트 환기,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을 조작할 수 있다.

국내 출시 가격은 2억5000만원 대부터. /김대학기자 tomat@

삼풍백화점 붕괴, 그 후 19년

권기봉의 **도시산책** <86>

서울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 간다. 기억하기 싫은 역사나 사건사고가 일어난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교대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나 반포역 쪽으로 걷다 보면 나오는 아크로비스타라는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터도 그런 경우다.

주변에 관공서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 잘 알아채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곳은 지난 1995년 12월 1일, 5백여 명 사망에 천 명에 가까운 부상자를 내며 붕괴된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다.

삼풍백화점은 당시 백화점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이름이 높았던 백화점이었다. 그러니 1989년 세워진 건물이 채 6년도 지나지 않아 무너진 것은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함 때문이다.

삼풍건설산업은 애당초 아파트 상가로 짓던 건물을 백화점으로 급히 바꾸어 지었는데, 이때 4층짜리를 억지로 5층으로 높이면서 구조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쇼핑공간 확보를 위해 벽을 무리하게 텄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바닥과 천장을 뚫었다. 결과적으로 몇 개 안 남은 기둥에 쏠리는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의 철근도 제대로 넣지 않아 삼풍백화점은 붕괴 시작 단 20여 초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건물도 부실공사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백화점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였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명확한 상태였음에도 매출에 지장을 줄까 영업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준 삼풍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이한상 사장 등은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현재 '양재 시민의 숲'에 가면 한쪽 구석에 위령비가 한 개 서 있다. 그러나 그 뿐, 삼풍백화점이 있던 아크로비스타 근처에는 당시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인명 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한 그 어떤 기록이나 흔적이 없다.

과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이토록 쉽게 잊어도 되는 걸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은지 19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인재에 기반한 건물 붕괴와 선박 침몰 등이 끊이지 않기에 염려를 거둘 수가 없다. /'다시,서울을 걷다'저자

날씨

9/19 金 일출시각 06:17 일몰시각 18:3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illegible].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선석에 의한 가림 증상을 단순한 감기로 생각해 감기약을 복용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천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5		
4	9						8	
3	5				4			
					6	3		9
	3		9	8	1		6	
9		7	5					
			4				1	8
	7						3	4
		1		6		7		

		7				4		
4			9		7	5	1	6
				3				9
	3	2	4			6		
	4						2	
		1			6	8	3	
2				5				
3	6	5	7		6			2
		4				3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펜사 스도쿠 프리미어 (저자 고든 프렉크 록고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illegible]

고입 앞둔 딸 학교 선택·진로가 궁금
일반고 진학 무난, 의류학과가 적성

Q 가네코 여자 99년 10월 22일 10시5분 (자유형개)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3 딸아이의 진로를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10시 5분입니다. 어떤 길로 진로를 정해야할지, 어떤 직업을 갖어야 적성에도 맞고 풍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가야할지 아니면 국제고나 외고를 가야할지, 너무 막연하고 고민이 되어 상담을 올려봅니다.

A 현재 학마(學馬) 학문에 안정이 부족(薄)기 자유를 해고 였으니 공부의 진척이 더디게 됩니다. 국제고나 외고를 가는 것은 희망사항은 될 수 있으나 힘이 들고 들어가도 99년생처럼 금수(金水)기운이 부족하면 의욕이 있을지라도 근기가 받쳐주질 못하여 체력적으로 따라가기 힘듭니다고 봅니다. 자녀들이 하고자하는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학구열이 높거나 고학력의 부모를 두었다면 자녀입장에서 부모들이 피곤해지고 피하게 되겠지요.

살다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으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부(富)도 있으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특히 명문학교가 아니어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넘치게 되면 욕심이 되고 유혹이 되기도 하겠지요.

따님은 천봉더 위로 솟은 달과 같은 형상으로 큰길을 밝히는 달빛이 되어 유쾌하고 쾌달하여 곤잘 베푸는 성품을 지녔기에 무난한 일반고를 가도 살은 아름답습니다. 생일지 태어난 날에 현침(懸針) 날카로운 기운으로 가예(技藝) 방면으로 소질이 있어 의류학과도 소질이 있으나 자주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성은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모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앞서는 소중한 정서적 역할이 그 이상이며 어머니의 기도를 능가하는 것은 없을 듯 하니 기도 많이 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모은 기도를 통해 답면 문제에 대해 기도를 비는다 사람이 동물과 나른 것이 바로 이 영성(靈性)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기도는 어찌 보면 정신과 영성의 상호작용이지 나의 간절한 마음이 우주의 기운과 파장으로써 감응을 하니 자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9일 (음 8월 26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멀리서 반가운 소식 날아든다. 60년생 낮은 곳으로 임해야 손해 없다. 72년생 갈 길이 머니까 사소한 것은 잊어라. 84년생 자식바보 부모가 고민다.

소 — 49년생 주변 한 검에 잘 적응할 것. 61년생 일이 꼬여도 계속 시도해야 한다. 73년생 위기 뒤에 기회가 오니 잘 살려라. 8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호랑이 — 50년생 허욕부리면 언심만 잃는다. 62년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구나. 74년생 고난의 끝은 보이기 시작한다. 86년생 귀가 얇으면 심신만 피곤~

토끼 — 51년생 가족은 아무리 봐도 지겹지 않구나. 63년생 컴퓨터 등 사무용구에 불평 부린다. 75년생 주변 충고에 귀 기울여라. 87년생 땀은 결실로 연결이 된다.

용 — 52년생 토두막이 혜택이 나온다. 64년생 숫총이는 술을 피해야 하는 법~ 76년생 생각도 못한 이득에 최포로 콘나. 88년생 기나리던 소식이 늦어 답답하구나.

뱀 — 53년생 따늘한 시선에 깊이 성찰할 것. 65년생 어려움에 처하나 도우미가 나타난다. 77년생 내 말을 한 다음 남을 생각할 것. 89년생 굳트진 언안 마음의 문 연다.

말 — 42년생 이웃과 정 나눠서 기쁘니. 54년생 계절이나 내기하면 대박 터지는 날~ 66년생 자영업자는 돈으로 인한 물상사 조심~ 78년생 직장인은 위치가 굳어진다.

양 — 43년생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55년생 성이 정확해야 손해 구설수 없다. 67년생 손해 보더라도 내일 생각할 것. 79년생 물고기가 큰 강물을 만난 격이다.

원숭이 — 44년생 최강은 가장 마지막에 잃어야 한다. 56년생 협상 좋은 일만 있는 법~ 68년생 자영업자는 인력 덕을 톡톡히 본다. 80년생 친구와 돈거래는 냉정할 것.

닭 — 45년생 섭섭한 마음 들어도 참아라. 57년생 환자는 병세가 많이 호전된다. 69년생 술자리서 큰소리치면 나중에 후회~ 8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개 — 46년생 누명의 굴레서 벗어난다. 58년생 과음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할 것. 70년생 귀한 사람 소개받아 힘이 솟는다. 82년생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나서지 말라.

돼지 — 47년생 아직 변수 많으니 안심 말라. 59년생 문제에 진 빚을 갚아 개운하다. 71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83년생 부모에 효도를 많이 성겨서 즐겁다.